

■ 이화여대 법과대학 법학과 조관석 교수 《회복적 사법연구센터 소장》



-회복적사법센터의 설립목적, 회원 구성, 주요활동 등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관석 교수 : 회복적사법센터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학계와 실무계가 서로 협의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09년 9월 4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센터는 특별히 회원제를 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복적 사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와 실무가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설립을 기념하여 2009년 9월 4일 '회복적 사법 실무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법원, 검찰, 경찰, 보호, 소년, 교정실무가와 학자들이 참가하여 설립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09년 11월 12일과 25일 양일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함께 전국 형사조정위원 전문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년보호기관에 적용 가능한 회복적 사법 운영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법무부)을 수행하였습니다.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에 대한 회복적 사법연구센터의 역할 내지 바람직한 관계정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조관석 교수 : 범죄피해자의 지원과 회복적 사법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밀접하고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센터는 앞으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지역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내 센터이다보니 실무에 도움이 되는 연구에 주력하고, 세계의 선진 내용들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겠습니다.

- 조관석 교수님은 평소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에 공이 많으신데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지원에 대한 방안과 범죄피해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조관석 교수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범죄피

해자보호지원계획을 보다 내실화하여야 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참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중인 피해자기급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며, 이를 실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관석 교수: 이용우 전국연합회장님의 열정과 지도력과 전국 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범죄피해자의 이웃이자 친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앞으로 좀 더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형사정책연구원의 설립목적, 회원구성 주요활동 등 형사정책연구원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89년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신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하나로 국내 유일의 형사정책전문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형사법연구센터, 범죄연구센터, 청소년범죄연구센터, 교정보호연구센터, 범죄통계조사센터, 대외협력센터 등 6개의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지원 대책에 대한 연구는 범죄연구센터와 범죄통계조사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역할 내지

바람직한 관계정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직접적인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센터를 아우르는 전국적인 연합체로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개별 센터들이 하기 어려운 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전문상담원의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피해자들의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입법운동 등을 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형사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서 본 연구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관한 '충실한 연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연구해야 할 시급한 분야는 여러 유형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론의 개발도 시급합니다.

한편, 본 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두 번째 분야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연구결과와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관한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에게 적실하고 실효성있는 보호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지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김 박사님은 평소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지원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보호 지원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많은 방안들이 법제도로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전달주체가 국가 형사사법기관인 경우 범죄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일차적인 목적은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판의 유지이며, 따라서 이들 기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에 피해를 통보하지 않은 피해자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련의 절차를 거쳐 형사사법기관을 떠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민간단체에 의한 피해자보호지원활동은 서비스의 공급과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됨으로써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정부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정책이나 관행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의 일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주위 동료나 이웃들에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 민간단체의 피해자보호지원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되 민간단체들이 자기정체성과 관리능력을 가지고 정부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공익을 생산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끝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는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지원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와 더불어 민간단체에서는 전문성의 제고와 윤리강령의 제정 및 이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피해자지원활동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담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는 피해자지원활동이 오히려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2차피해자화를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피해자지원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한편,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윤리강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센터의 종사자들이 피해자 및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지원활동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윤리강령(예를 들어 무보수의 원칙, 피해자로부터 얻은 정보 및 사실 등에 대한 비공개원칙 등)을 만들어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센터 제2회 범죄피해자 초청 위로의 밤 행사 개최

윤다훈 홍보대사 지원금과 생활가전제품 전달 가족대표의 '감사의 말씀' 중에 장내 분위기 숙연



▲이용우 이사장이 인사말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을 격려하고 있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2009년 10월 29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삼원기근 본점에서 범죄피해자 50여명을 초청하여 "제 2회 범죄피해자 초청 위로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현철 법무부 인권구조과 장, 오세인 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상구 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안희준 검사, 문정수, 권태성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오늘 초청행사에 초청된 피해자 전원에게 지원금(월동준비금) 및 생활가전제품을 홍보대사인 텔런트 윤다훈씨가

전달했다.

이용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중앙센터가 개원한 이래 3년여에 걸쳐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돕기 위해 상당을 통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에 역점을 두고 봉사해오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 반갑고 특히나 상처에서 벗어나 건강한 마음으로 재기해 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보람도 느끼며 마음 뿌듯하다"며 "이제 사람들의 원망의 끈을 놓아주고 용서해 주자며 진정한 승리자는 적이 아닌 자기 자신의 분노와 미움을 이겨낸 사람이라며 지나온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기억하기 싫은 땅의 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새로운 삶에 지평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철 인권구조과장은 "그동안 중앙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범죄피해자들

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 주고 모든 지원과 배려로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온 위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위로의 밤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이용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 찬사를 보낸다"며 앞으로 "중앙센터가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아픈 마음에 상처를 치유시켜주고 보듬어 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격려사에 대신했다.

한편 행사 후 연예인들의 사인회에 함께한 사진촬영으로 이들의 마음을 한결 따뜻하고 흐뭇하게 해주었으며 범죄피해자 가족대표의 감사의 말씀 중에는 장내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유영철 및 논현동고시원 피해자 25명 초청

1/4분기 지원금 6천200만원 전달식 가져

오세인 제2차장검사 이용우 이사장 피해자 위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3월 23일 센터 사무실에서 유영철 살인피해자와 논현동고시원 방화 피해자를 비롯 가족들 25명을 초청해 1/4분기 지원금 6천2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지원금은 5명에는 지정기탁금으로, 나머지 20명은 이용우 이사장을 비롯 센터 운영위원 등이 낸 기부금으로 전달되

었다.

이날 오세인 제2차장검사(보호위원장)이 참석해 피해자를 격려하며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애석하지만 올해로 피해자지원 기금법 통과되면 범죄금의 일부를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용기와 희망을 가져달라"

고 말했다. 그리고 아울러 7월 개관하는 스마일센터도 많이 활용하여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이사장은 "앞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알리고,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센터를 자주 활용하여 피해를 회복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오세인 제2차장검사와 이용우 이사장이 피해자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원금 전달식에

앞서 이상범 강창룡 씨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용우 이사장이 피해자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28일과 12월 3일 독거노인을 비롯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자 월동준비금 및 의료비 전달

이용우 이사장 "빠른 쾌유와 복귀 기대"

정 51가정을 선정하여 각 20만원씩 총 10,200,000원의 월동준비금(김장값)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또한 강도피해자 3명, 폭행피해자 1명 등 총 4명에게는 의료비로 각 100만원씩을 직접 전달했다.

이용우 이사장은 의료비 전달에 앞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여러분의 심적인 아픔을 안

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약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길 기원하며, 충분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원센터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의료비인 만큼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일상적인 생활로 빨리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사장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범죄피해자 51가정은 센터

에서 겨울철 감장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항상 꾸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칫 경제적으로 소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 나눔의 온정을 전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후후에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는 진 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자원봉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센터 범죄피해자와 가족 초청 지원 격려 올 상반기 8가족에 1500만원 지원



▲이종관 이사장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관)는 2010년 2월 12일 오전 10시30분 상담실에서 피해자기족을 초청해 지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날 피해자 양 모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15년을 선고받아 2009년 6월 24일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09년 11월 11일 17시40분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94-20 앞길에서 가해자 김00는, 피해자와 아께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양 모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바다에 던지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

아 피해자에게 12주간의 미안성 뇌손상 등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3명의 가족은 12광형의 연립에서 (부)는 신경정신과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영위하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아직 미혼인 피해당사자는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 500만원과 향후 8개의 치아파질 된 보철, 신경정신과적 치료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센터에서는 양 모씨 피해자에게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했다.

이종관 이사장은 "너무 갑작스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적극 돕겠다"며 격려했다.

서울동부센터는 이번 피해자 양씨와 가족을 포함 8가족에게 총1,500만원의 경제적, 의료적인 지원을 했다.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scvc.or.kr

서울남부센터 센터 홍보와 범죄예방 위한 캠페인 전개 리플렛 2000매 주민 및 외국인들에 배포



▲중국교포 집단거주 및 청소년 우범지역인 대림동일대에서 센터와 범방협이 연계하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승제)는 2010년 3월 19일 오후6시가 지 중국교포 집단거주 및 청소년 우범지역인 대림동일대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승제 이사장 및 남부지검 형사부장 검사 주관 하에 센터 회원 30여명과 범죄예방협의회 회원 30여명 등 7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 활동과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준비한 플랜카드, 홍보용 피켓 및 어깨띠 등을 회원들이 착용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제작한 홍보용 리플렛 2,000매를 주

민 및 외국인들에게 배포하면서 대대적인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김승제 이사장은 "꽃샘추위에도 참여해 준 회원과 범방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홍보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사람들의 올바른 이해와 지원 동참이 이뤄지기를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범죄피해자는 물론 특히 탈북자, 다문화, 틈새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생활, 의료지원 등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이들에게 수호천사 역할을 하면서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유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민사사건과 관련한 법률자문 지원을 해줌으로서 민사소송에 관련된 사건이 행정절차 없이 지역적으로 해소되는 사례를 유도하는 등 많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생활, 의료, 법률지원 등 200여건 처리 1억 5천 여 만원의 사업예산으로 피해자 지원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승제)는 전년도 사업실적으로 생활, 의료, 법률지원 등 200여건, 1억 5천 여 만원의 사업예산을 지출하였으며 상담, 형사조정 등 410여건의 사업을 진행했다.

2010년 1월 4일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김길수 처장은 군(육군)에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008년 11월에 형관 장교로 전역을 한 뒤 탈북자,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양천구 거주 지역에서 재향군인회 안보강사,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 대동령 한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안보강의 등을 통해 기아에 허덕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참혹한 북한주민들의 실상과 정부의 대북정책 등 국가관, 안보관에 대한 강의를 수시로 진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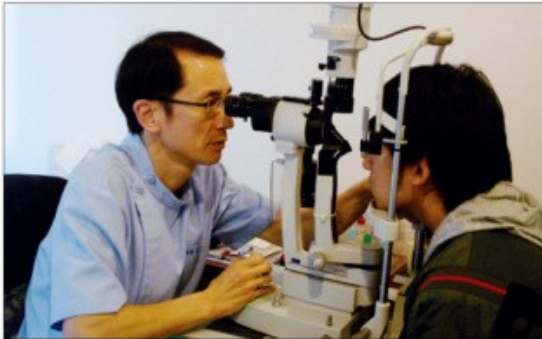
김 처장은 지난달 양천구 거주 탈북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철원지역 땅굴 등 안보현장 견학시 이들과 동행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범죄피

해자에게 생활, 의료, 법률, 구조지원 등의 지원방법, 대상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함으로서 소외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생활하고 있던 탈북주민들에게 암흑 속에서 한줄기 빛을 발견한 것과 같이 기쁘고 반갑다는 고마움의 표현을 수시로 받고 있다.

또한 지난주 양천구 지역주민 등산연합회 및 민주평화통일문화회의가 주관한 산행시에도 함께 동행 한 탈북자 및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센터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교육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10여건의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의 실적이 있었다.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ssvc.or.kr

서울서부센터의 손길 작년 한해 홍보 통해 9천500여만 원 피해자지원 김갑식 이사장 “전폭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지원 필요”



▲협력병원인 강남성모안과 조명규 원장이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다.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는 피해자 지원센터에 관한 홍보를 통해

에 pamphlet을 비치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2009년 작년 한 해 94,786,000원을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원했다.

홍보 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조심스레 방문하시는 피해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날 수 있도록 센터의 협력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 아두웠던 피해자들의 얼굴에서 한 줄기 빛을 얻은 듯 밝은 미소를 되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 및 학자금 지원을 통

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센터에서는 설·추석 명절에 경제적으로 힘든 피해자들을 선별하여 쌀, 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센터와 피해자의 만남이 아닌 가족과 같은 율타리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김갑식 이사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가 단순히 물질적 지원만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율타리 안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 장애이웃에게 따뜻한 사랑 나눔 “밀알선교단” 매년 설명절과 추석 방문



▲송한근 이사장 등이 TV등 생필품을 전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한근)는 2010년 2월 12일 설명절을 맞이하여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에 소재한 “밀알선교단”을 방문하여

보호하고 있는 장애우 20명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한근 센터 이사장 운영위원 5명은 이날 55인치 TV, 쌀 80kg, 사과 3상자, 굴 3상자, 세제 등 생필품을 준비하여 장애우들에게 전달했는데 센터는 매년 설명절과 추석에 밀알선교단 시설을 방문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송한근 이사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찾는 이들이 줄어들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매년 방문하고 있는데 올해마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간다며 늘 건강하고 희망을 잃지 말고 생활해 달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성폭력 상담소와의 업무협약

(사)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한근)는 2010년 3월 25일 경기도 동두천 성폭력 상담소에서 박성에 소장 겸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조수기 사무국장이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상담소와 센터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가 지원신청을 하거나 피해자 상담할 경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즉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인지한 경우 피해자가 전문가 상담이나 정신안정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성폭력 상담소에 전문상담 및 정신안정 치료를 의뢰하여 지원받게 하고 있다.

또, 상담소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한 후 피해자에게 법률(고소, 민사소송 등)구조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센터에 지원을 의뢰하면 센터에서 피해자 지원을 하는 연계체제를 운영함으로써 결국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파부로 느끼는 피해지원을 받도록 상호 협조하는 적극적 지원체제를 실현하게 되었다.

2010 홍보달력 1000부 제작 배부 홍보모델 김혜수와 사업 추진사진 배경



(사)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한근)는 2009년

12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대사인 김혜수를 모델로한 탁상용 달력을 제작하여 전국센터와 유관기관에 배부했다.

2009년도 센터업무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탁상용 달력을 만들어 다른 센터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도 홍보용 달력을 편집하여 홍보모델인 영화배우 김혜수와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 사진을 배경으로 한 달력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용 달력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이용방법을 소개하고 그 동안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적 사법에 크게 기여해온 형사조정 제도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해 놓은 홍보자료가 2010년도 365일 동안 이 달력을 볼 때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알려줄 수 있는 최상의 홍보자료가 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발굴 홍보 스티커 제작 활용

(사)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한근)는 2010년 1월 8일부터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발굴 홍보 스티커 1,000매를 제작 활용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발굴 홍보 스티커는 관할 경찰서(8개소), 소방서(4개소), 지자체민원실(9개소), 상담소(7개소)에 배포했다.

수원센터 피해자 9가정에 긴급생계비 3천여만 원 지원 아버지 사망한 학생 등에는 학용품 세트 선물도



▲이순국 이사장이 피해자가족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수원지검(검사장 박영렬)과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연말을 맞아 12월 29일 센터 상담실에서 최대건 담당검사, 이순국 이사장, 박항영 사무국장, 사건 피해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9건의 피해자들에

게 총 3,120만원을 지급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강간을 당해와 그 후유증이 심각한 지적장애 여학생과 렉치기 강도에게 아버지가 사망한 초등학생 2명 등에는 각 5만원 상당의 학용품 세트를 선물했다.

2005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원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 가정에 주거 및 취업지원을 해주고 "인양어린아남치살인사건" 및 "강호순사건" "조두순사건" 피해자 (유가족) 등 범죄 피해자 175건/255명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주거 마련비용 등으로 224,945,630원을 지원했다.

센터는 사후관리측면에서 범죄피해자와 센터 전문위원을 연결하는 "사랑의 끈"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위원이 주기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리치료와 과일 및 부식, 의류, 신발, 화장품, 도서 등을 지원하고 유족들과는 영화 감상, 불링, 김치 담그기, 도자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하여 그들이 하루빨리 피해의 고통에서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해어나가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피해자 초등생 남매 지원

2008년 12월 12일 피해자 인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해자인 남편 박씨에 의해 목이 찢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정신분열 증상과 함께 조울증상도 보여 아이들이 늘 불안해하였고, 아이들 또한 피해자 인씨의 잦은 구타와 폭언에 시달려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학습적인 면이 현저히 뒷처져 있었다.

9세 딸은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한글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의사표현능력이 많이 떨어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8세 아들 역시 초등학교 1학년임에도 한글을 전혀 익히지 못했다.

아이들은 현재 할아버지(70세), 할머니(66세)와 함께 지리현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의 주 보호를 맡고 있는 할아버지는 6년 전 인은 교통사고 후 유증으로 뇌가 줄어들어 인지력(기억력 감퇴/차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연말회는 0원인 사건소식을 접하고 기탁금으로 500만원을 지원, 수원센터에서도 생계지원 500만원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제공하였다.

8살 세준이는 처음에는 사람의 접근을 두려워하고 어른을 회피하다가 다양한 미술치료, 푸드테라피, 놀이치료) 심리치료를 통해 어른들에 대한 경계심도 완화되었고 심리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도지기 치료를 함으로써 직접 물건을 완성한다는 성취감을 얻게 되고, 휴을 인지면서 감성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 센터 시정 홍보를 통한 피해자 지원

「사례1」 2009년 12월 외동아들이 중국인에게 살해를 당한 후 뇌출혈과 허리디스크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혼자 힘겹게 살아 가던 아버지가 보건소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 동영상을 보고 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센터의 도움으로 구조금 신청을 마친 상태이고, 센터에서 준비한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

「사례2」 3년 동안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구타와 왕따를 당해 온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문제로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던 40대 주부가 전광판으로 나오는 센터의 안내 문구를 보고 센터로 방문하였고 센터에서는 상담 후 피해 학생에게 놀이치료를 통한 상담지원을 하고 있으며, 센터 전문번호사를 소개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 시정 홍보 네트워크 구축

· 수원시 홈페이지 및 해피수원방송(인터넷)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와 함께 센터 이용을 알리는 홍보 동영상 24시간 표출
· 수원시청 전광판
· 수원야구장 전광판
⇒ 매일 24회(월 1,488회) **수원시**

· 화성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을 알리는 문구와 홍보 동영상 24시간 표출
* 인구가 밀집되는 12개지역에 미디어보드와 U-플래카드 홍보 이미지와 문구
⇒ 매일 672회 **화성시**

· 문화행정타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 전 광판 ⇒ 매일 240회(월 7,200회)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와 함께 센터 이용을 알리는 홍보 동영상 24시간 표출 **용인시**

· 41개 지역 공공기관 IPTV, PDP TV 및 LCD 모니터 ⇒ 매일 369회(월 5,400회)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을 알리는 홍보 동영상과 홍보 안내문구 24시간 표출 **오산시**

▲ 시정 홍보는 200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센터홍보와 이용 정보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출된다.

* 위 사례와 같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지 못해 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면서도 힘든 삶을 살아가며 소외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홍보 내용을 접하고 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연중 지속적으로 전광판 및 인터넷을 활용 홍보하여 범죄피해자들이 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다시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자활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홍보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 유동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원시 야구장 전광판을 통해 센터 홍보를 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사)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009년 11월 11일, 11월 27일 수원지검 관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센터의 범죄피해자 지원사례 등 콘텐츠를 시청 공보실을 통해 널리 알리고 지자체의 홍보매체(전광판, 인터넷방송 등)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을 전파하기로 했다.

(사)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택 · 안성센터 자원봉사자 정월대보름 한마당

평택 · 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배수광)는 2010년 2월 25일 자원봉사자들의 단합을 위한 "정월대보름 한마당"을 가졌다.

평택 · 안성 4개 지역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별 옷놀이 대항전을 가졌고 함께 중식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친목을 나누며 화합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는 이영만

지청장과 배수광 이사장은 자원봉사자들과 옷놀이도 함께하며 즐기는 가운데 평택지청 이영만 지청장은 "오늘 참석하신 평택 · 안성지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 함께 친목을 나누며 2010년에도 범죄피해자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며 격려를 했다. 이후 센터 배수광 이사장은 "대보름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살인현장 청소

2010년 3월 5일 센터 배수광 이사장은 비롯한 현장근 위원 외 5명과 A경찰서

CARE요원 이선규 경위 외 3명은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을 함께 정리하고 혈흔 등을 약품 등을 이용 깨끗이 청소하여 피해자가 겪을 2차 피해를 차단했다. 피해자 가족 및 회사 동료들은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데 청소 등 정리정돈 까지 해주어 너무 고맙다"며 "빨리 아픔을 잊고 생업에 열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센터, 법무부 대전지검 공동 『안전한 대전 프로젝트』 강력범죄 예방 캠페인 이귀남 법무부장관 참여해 시민에 경보기 등 배포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손종현)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한명관)은 2010년 1월 29일 오전 11시, 대전 중구 은행동 지하상가(충남도청~은행정이 거리) 일대에서 강력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한 대전 프로젝트』 관련, 강력범죄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채동욱 대전고검장, 한명관 대전지검장, 김희관 대전지검 차장검사, 손종현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종명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장 및 박성효 대전시장, 이은권 중구청장 등

▲ 이귀남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캠페인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을 비롯한 기관장과 단체회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은행동 지하상가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예방수칙이 담겨진 리플렛과 창문 열림 경보기를 배포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있었던 도마동 고시원 살인사건과 원룸 거주 자매 살인 사건 등 대전에서 발생한 대표적 강력사건의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문이나 창문만 확실히 시정했다면 끔찍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안전한 대전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설맞이 위로방문 생필품 전달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한명관)과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손종현)은 2010년 2월 10일 오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대전 지역 범죄 피해자가정 10곳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을 위로하고, 떡갈떡과 쌀, 가래떡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불의의 범죄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물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방문하여 범죄 피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방문한 한 가정의 피해자 이모씨(여, 45세)는 지난 2008년 10월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로, 병원치료비 조차 없으며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센터에서 심의를 거쳐 경제적 지원 및 의료지원(정신과 치료와 치과 치료)을 받았고, 현재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여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따로 자녀들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처지이기 에, 대전센터에서 2009년도에 의료비(치과 치료) 200만원과 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하였다.

『범죄피해자 위로 및 후원의 밤』 체험사례 발표, 범죄피해자 10여명 2천400만원 지원금



▲범죄피해자 위로 및 후원의 밤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한명관)과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손종현)는 2009년 12월 2일 오후 6시30분 한국법문화진흥센터(솔로몬 로파크)에서 『범죄피해자 위로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등 내·외빈, 범죄피해자 및 가족, 검찰간부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후원자 등 200여명 참여하여 자리를 같이했다.

후원의 밤 행사는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후원의 장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행사로는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동영상 시청, 범죄피해자 체험사례 발표에 이어 범죄피해자 10여명에게 2천400만원의 지원금 전달이 있었다.

대전센터는 2003. 11. 21. 개

원 이후 현재까지 총 200여명에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및 의료 상담지원(지난 9월 발생한 도마동 자매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을 수사검사와 함께 방문하여 위로금 전달)의 실적을 갖고 있다.

향후, 지역별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여 범죄피해자를 가까운 곳에서 지원하고, 구·군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장밀착형 지원』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춘천센터 시·군·이장 업무 협약식

2010년 피해자 106명에 1억여 원 지원예정

(사)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윤현중)는 범죄피해자의 초기접근의 신속성과 효과적인 피해자의 회복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시·군(동)장협의회와의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2009년 12월 29일 오전 11시30분 춘천지방검찰청 별관 1층 유정홀에서 개최했다. 지원센터와 시·군(동)장 협의회는 범죄피해자의 초기접근과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춘천지방검찰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범죄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따뜻한 연امل을 보낼 수 있도록 피해자 가

정 10세대를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지원센터는 2009년 한 해 동안 춘천지역 범죄피해자들 44명에게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등으로 4,948만원을 지원하고, 보호상담시설 및 법률구조절차 안내 97건 등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노력해 왔다.

연امل을 기하여 범죄피해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10세대를 초청하여 격려하고 위로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센터는 올해 관할구역 내 이장회의 때 범죄피해자지원 시책 설명회를 3회 가져 범죄피해자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6월중 피해자지원센터 위원과 동·이장들



▲윤현중 이사장을 비롯 시·군(동)장 협의회장들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상담기법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기관 위탁교육도 계획 중에 있다. 그리고 피해자 106명에 생계 의

료 학자금 지원등 1억여 원을 지출 예정이며 중추력과 연امل을 기해 22가정에 8백 6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ccvc.or.kr

부산센터 고신대복음병원과 의료지원협약 체결식 본인부담금의 50% 병원측에서 부담하기로



▲의료협약 체결식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경사장 김기준)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

장 구정희)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원장 조성래)과 지난 2월 1일 농심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오후 6시 30분~9시까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지원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부산지검 검사장의 차장, 부장검사, 사무국장, 담당검사, 센터 이사, 직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정희 이사장과 조성래 병원장은 의료지원협약서에 사인하고 악수를 나눴다.

이번 협약의 취지는 종합병원

급의 병원들이 의료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범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과 또, 수술 처치 입원비 등 피해자가 역을하게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피해자가 보다 빨리 피해회복을 하고 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기회로 말미암아 병원은 인술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검찰-피해자지원센터-의료병원으로 구성되는 사회

적 지원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협약의 주 내용으로는 센터를 통해 의뢰하는 피해자에 대한 호흡 병실 등 양질의 의료제공 및 각종 보험감면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를 병원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협약식을 마치고 지역 병원의로서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본 협약에 참여해준 것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1월 26일 현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구포성심병원, 광혜병원, 대동병원, 부민병원, 부산고려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영도병원, 좋은간양병원,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좋은삼선한방병원(이상 12개병원, 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피해자 유족 지원금 자발적 후원과 내부모금 모아진 기부금도 전달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구정희)는 2009년 12월 29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지검 6층 소회의실에서 부산 중구 신

창동 실내실탄사격장 화재사고의 피해자 유족 9명을 초청하여, 지원금 전달과 아울러 센터 임원, 회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으로부터 답지 받은 기부금을 전달하고 슬픔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센터에서는 사고 발생 후 '부산시사고대책본부', '부산시경찰청', '중부경찰서' 등을 방문, 연락하여 센터를 알리고 연계지원의 의사 전달에 이어 피해자 유족 등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위로 및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보상 등 소외된 내국인 피해자지원을 위한 모금 계획 발표(동래구청-부산광역시청에 기부금모금허가신청서 제출)하고 부산광역시, '보상지원본부' 설치 및 조례제정 계획 발표, 공개모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자원봉사자 및 범죄피해자 인권지킴이단과 함께 범죄피해자 인권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릴레이로 진행되어 2009년 10월 27일, 28일, 31일 동래지하철역 및 동대대법정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센터를 홍보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하여 부산시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금 철회 후 자발적 후원과 내부 모금으로 전환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bcvv.or.kr

울산센터 피해자 50세대 선정해 설맞이 성품전달 자조모임 통해 공감대형성 피해회복에 큰 힘



▲부이사장과 검사가 피해자가정에 설맞이 성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광태)는 2010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류원근 형사2부장, 배재수 피해자지원담당 검사 등 검찰관계자와 김영화 부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 등 여러 가지 강력사건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피해자 50세대를 선정하여 명절맞이 사랑의 상품 전달

달(총 1,000만원 상당) 및 피해자 자조모임을 가졌다.

개소 후 범죄로 인한 피해자 상담을 통해 지원하였던 피해 50세대를 선정하여 각 세대 당 20만원의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재 상담을 통해 추가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성품 전달식이 끝난 후 피해자 자조모임을 통해 피해자들 간의 교류와 함께 사전 후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피해회복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며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인 의지를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연말연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가정에 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광태)는 연말연시를 맞아 범죄피해자 세대 중 특히 어려운 15세대를 선정하여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센터는 울산 사회복지협의회와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강력범죄피해자들에게 사랑의 김치를 전달하여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김광태 이사장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회복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이번 행사를 위해 후원해 주신 복지협의회와 기업체 관계자에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www.ucvc.or.kr

청주센터, 지검 후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결의대회 개최 모범 피해자 자녀 장학금과 피해자 수기낭독도



▲결의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사)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영)는 2009년 12월 8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청주지방법원 검찰청(검사장 김수남) 후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식전행사로 영상 홍보물 상영이 30분간 있었다.

결의대회에서는 우수활동 위원 검사장 표창(장영수 이한중 이용재 박정민 원희성 최인석 위원) 및 이사장 감사패(김재중 주현주 위원) 수여, 모범 범죄피해자 자녀 장학금 수여, 운영위원(김경배 한국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외 7명) 및 분과 위원(상담분과 고경숙 여성긴급전화 충북 1366 팀장 외 6명, 사법보좌인분과 김진섭

대입재수생학원 감사 외 3명) 위촉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두영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센터는 피해자 지원활동과 더불어 성범죄예방 교육과 같은 범법활동에도 더욱 힘써 피해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우리지역 범죄피해자의 울타리로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희망을 되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사장은 격려사에서 "노력과 희생이 스스로 불타는 촛불의 환한 빛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힐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에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결의문 낭독과 아울러 2009년 활동실적 보고에 이어 숙연한 가운데 형사조정위원장이 형사조정사례발표와 상담사례 및 피해자 수기낭독이 있었다.

만찬 시간에는 하늘소리국악예술단(단장 연규민)의 국악 연주가 있었다.

농촌지역 절도피해자 생계지원금 1천9백만 원 전달

(사)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영)에서는 2009년 12월 28일 오후 3시 검찰청 208호 센터사무실에서 2009년 4/4분기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청주센터 이두영 이사장과 청주지방법원 검찰청 정용진 1부장검사, 안재훈 피해자지원전담검사, 센터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역 절도사건피해자 피해자 K씨에게 지원금 200만 원 등 총 17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지원금으로 1천 9백만 원을 전달했다.

절도사건 피해자 K씨는 농촌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 부부로 1년 동안 농사지은 농작물을 팔아

마련한 생활비 및 내년에 농사지를 농지재 구입비용 500여만 원을 모두를 절도피해 당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크게 낙심하고 있던 차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측의 도움을 받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진심어린 고마움을 표시했다.

청주센터는 2005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78명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1억6천7백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였으며, 올 2009년에도 약 7천여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이미 3/4분기까지 28명의 범죄피해자에게 5천 5백여만 원을 지원하여 범죄피해를 당한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길을 열어 주었다.

올 한해 모두 총 45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천4백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두영 이사장이 피해자 가족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양센터 강도강간피해자 등 지원

샘안양병원과 평촌정형외과 등에서 치료 중 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현장정리 지원



▲박찬호 이사장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찬호)는 2010년 1월 15일 강도강간과 강도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피해자 오모씨는 2009년 12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사건 발생 후 119에 의해 한림대 성심병원 응

급실에서 응급조치 후 중간에남금 180여만 원을 지불하고 치료비 부담으로 범계약인근의 평촌정형외과로 다음날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소견으로 이비인후과, 치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최초로 2009년 12월 25일 오후 5시30분경 사건 발생 후 한림대 119에 의해 한림대성심병원에 입원 치료 중 퇴원하고자 하나 치료비 지불이 되지 않아 퇴원을 못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최씨는 현재 깁스, 상처 봉합부위 실타베 제거가 된 상태이며 통원치료도 가능하다.

오씨는 딸(17세, 무직)과 함께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의 월세방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500만원의 차킨집을 임차운영하고 있다.

최씨는 현재 특거로 상가 지하에 월세로 맥주집(황제 호프)을 운영, 별도 살림을 해오던 빌라 지하집이 있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작년 초 처분되어 살림은 지하를 빌려 보관 중이다.

센터는 오씨와 최씨에게 안양시 주민생활지원과장과 통화, 부시장 면담 결과 한림대 치료비(180여만



▲이종찬 센터사무국장이 병문안을 하며 상담하고 있다.

원 중 120여만 원 반환), 평촌정형외과 치료비(831,080원)는 센터에서 지불하고 샘안양병원 치료비는 안양시 '무한돌봄' 기금에서 부담(1.16. 평촌정형외과에서 종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함)해 지원이 이뤄졌다.

그리고 퇴원 후 정리되지 않은 사건 현장을 본인이 정리하고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안양보호관찰소(소장 박성기)와 협의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중인 지원 3명과 보호관찰과 1명의 지원을 받아 범죄현장 정리를 지원했다.

안양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 기초 생활수급자 지정여부를 해당 동사무소에 의뢰기로 했다.

(사)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